



☆ 본대로 느낀대로 ☆

洪水가 안겨 준 敎訓

“미리 根本的인 災害對策을 세워 두었더라면”

科總會長 金 允 基

옛날부터 불과 물은 무서워 했다. 더우기 물은 불을 끌 수 있어서 더 무서워 한 것 같다.

둘 다 天災之變입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火災는 人爲的인 데 비해 洪水는 自然的인 災害에 속하기 때문에 그被害는 늘었다. 이 밖에도 災害에는 많은 種類가 있다. 예를 들어 交通災害 産業災害 建設災害 등이 있다. 大然閣호텔과 大旺코너의 火災가 아직 우리의 記憶에 生生하며 그 쓰라림이 체 가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洪水의 被害가 보다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即 500餘名이 貴重한 生命을 잃었고 130億원이란 莫大한 財産의 損失을 가져온 것이다.

이 엄청난 被害는 果然 不可抗力의 것이 있을까? 그런 것만

은 아닌것 같다. 보다 일찍 內水의 排水處理 施設을 해 두었더라면 또 建築에 앞서 했어야 할 일들을 해 두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이재민을 내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 이 안타까움은 科學技術者로서 責任을 못 다 했다는 自責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이런 엄청난 災害를 당하기에 앞서 根本的이고 永久的인 對策강구가 있어야겠다.

또 當局에서는 우리들 科學技術者가 이런 對策강구에 熱意를 갖고 責任있는 研究를 할 수 있도록 積極的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같은 災害科學에 대한 研究課題를 전혀 度外視하였다.

大量 大規模化하는 事故와 公害의 蓄積 및 災害를 綜合研究하는 災害科學『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까지의 建設當局의 治山治水施策은 4大江開發 등에 의한 多目的「댐」施設萬能論이었다. 多目的「댐」은 水源부터 河口까지 河川水系를 一貫하는 綜合基本計劃아래 樹立되어야 했지만 이것 역시 正確한 氣象豫報網, 洪水調節을 위한 建設部와 많은 水力「댐」水門을 操作하는 韓電간의 綜合的이고 一貫的인 基準下에 系統化되어야만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였다.

人命과 資産을 保存하는 平素의 水防組織과 資材 및 動員 訓練이 필요하며 建設部는 5월을 災害의 달로 정했지만 洪水期가 6·7·8·9월까지인 이상 放心없는 正確한 水位觀測 및 對策이 필요하다.

특히 豫備軍의 水防에 대한 工兵訓練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며 美國에서 陸軍工兵이 全國洪水防禦에 責任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다. 60年代 부터 우리나라는 開發의 時代로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道路 都市開發 등으로 많은 社會間接資本이 우리의 國富로서 蓄積되었던 까닭에 治水防災등 國土保全의 重要度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서 從來 治水施設은 다른 生産施設과 달라서 1년에 1~2회 또는 몇년만에 생길지도 모르는 大洪水에 對備하여 巨額의 投資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財政與件 緊急度 優先度 등에서 社會的 虛費가 많다 하여 等閑視되기 쉬운 風土가 造成되어 있었다. 自古로 治山治水는 經國之大道라 하였고 또한 先進國은 生産 및 生活基盤에

앞서는 先行保全基盤으로 重要視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안다.

作心三日안돼야

따라서 지금 이 段階까지 成長된 國富의 蓄積保存을 위하여 변모된 國土에 대한 長·短期의 防災對策의 再檢討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은 洪水災害가 있을 때 변명하지 말고 水害의 쓰라림이 몇 달 안 가서 까맣게 잊혀지고 언제 있었더라는 듯이 종전과 같은 惰性으로 되돌아 가지 말고 確實히 實行해야 할 줄 안다. 그렇지 않으면 避難만 하고 事後救護만 하는 졸렬한 治水防災對策만 계속될 것이다.

8·19의 水害原因은 颱風아닌 集中豪雨로서 日本이나 美國에서는 數억원의 研究課題로서 分析되고 있어서 현재의 氣象觀測網으로는 集中豪雨가 局地的인 短時間集中의 前線性 降雨인 까닭에 豫報 하기가 어렵다는 結論이 있다. 따라서 豫報는 어렵지만 그 雨量은 時間 當 30mm 아닌 50~80mm 이상의 큰 降雨인지라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集中豪雨가 洪水原因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에서 颱風洪水와는 別途로 綜合治水對策이 새로 檢討되어야 하겠다.

요컨대 水害에 脆弱한 國土 및 河川與件에서 어느 정도의 被害는 甘受해야 하겠지만 被害額을 最小化하는데 舉國的으로 努力하는 이 民族의 새롭고 슬기로운 智慧가 아쉬워지며 強力한 治山治水對策이 바람직하다.

筆者 高大教授(理博)